

#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임소희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e-mail:sweetnurseme@naver.com

##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Shift Service Workers

So-Hee Lim

Dept. of Nursing, Kyungmin University

### 요약

**목적** : 본 연구는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조사연구로 제5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분석연구이다. **방법** : 연구대상자는 총 577명으로 20세 이상의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 중 조사 당시 근무 직장의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주 40시간이상 근로를 하는 상용근로자만 선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지지( $\beta=.26$ ), 근무만족( $\beta=.22$ ), 일과 생활 균형( $\beta=-.16$ ) 순으로 나타났으며, 14% 설명하였다. 또한, 일반적 및 건강관련 특성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중 보통( $\beta=.21$ ), 건강하지않음( $\beta=.14$ ), 연령에서 30대( $\beta=.18$ ), 감정대응 매뉴얼이 없는 경우( $\beta=-.11$ )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2%로 분석되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토대로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와 근무만족, 일과 생활균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하여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해 본다.

### 1. 서론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과업과 실제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삶의 과정에서 근로와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1]. 특히, 근로는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근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개인이 속하는 계층뿐만 아니라 자기실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2]. 근로만족은 자신의 직업 활동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으로[3], 최근에는 일에 대한 높은 만족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표본 자료인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의 생활만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제5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분석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7년 시행한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차 자료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총 577명이 선정되었다.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50,205명 중에서 20세 이상의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 중 조사 당시 근무 직장의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주 40시간 전일제 근로를 하는 상용근로자만으로 선택하였다.

####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및 건강관련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352명(61.0%), 남성이 225명(39.0%)을 차지하였다. 연령분포는 50대가 162명(28.1%), 40대가 139명(24.1%), 30대가 123명(21.3%), 20대 이하가 87명(15.1%), 60대 이상이 66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전문대졸 이상이 281명(48.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288명(51.6%), 41~52시간 168명(29.1%), 53시간 이상 111명(19.2%)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에 감정대응 매뉴얼 유무에서 358명(60.3%)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402명(69.7%)이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302명(52.3%)이 수면문제가 보통으로 나타났다.

[표 1] 생활만족도에 따른 일반적 및 건강관련 특성

General characteristic		n (%)	Life satisfaction		Scheffe
			Mean±SD	t/F (p)	
Gender	Male	225(39.0)	3.04±1.05	.66 (.509)	
	Female	352(61.0)	2.98±.92		
Age(year)	≤29	87 (15.1)	2.74±.91	3.63 (.006)	a
	30~39	123 (21.3)	3.11±.96		ab
	40~49	139 (24.1)	2.88±.56		ab
	50~59	162 (28.1)	3.08±1.06		ab
	≥60	66 (11.4)	3.21±.99		b
Education	≤ middle school	52 ( 9.0)	3.22±1.19	3.44 (.033)	b
	high school	244 (42.3)	3.07±.93		b
	≥ college	281 (48.7)	2.90±.95		a
Working hour per week	≤ 40	288 (51.6)	2.98±.91	2.06 (.129)	
	41~52	168 (29.1)	2.93±1.00		
	≥ 53	111 (19.2)	3.16±1.08		
Emotional response manual	Yes	229 (39.7)	3.11±1.00	2.14 (.033)	
	No	358 (60.3)	2.93±.95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402 (69.7)	2.83±.88	24.75 (<.001)	a
	Normal	166 (28.8)	3.37±1.02		a
	Bad	9 ( 1.6)	4.09±.97		b
Sleep problem	Severe	36 ( 6.2)	3.10±1.13	4.77 (.009)	
	Normal	302 (52.3)	3.11±.92		
	None	239 (41.4)	2.85±.99		

#### 3.2. 대상자의 일반적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대상자의 감정대응 매뉴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14,

p=.033).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사후검증결과, 연령에 따라 20대 이하(M=2.74), 40대(M=2.88), 50대(M=3.08), 30대(M=3.11), 60세 이상(M=3.21)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63, p=.006). 교육정도에 따라 전문대 졸업 이상(M=2.90), 고등학교 졸업(M=3.07), 중학교 졸업 이하(M=3.22)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44, p=.003).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함(M=2.83), 보통(M=3.37), 건강하지않음(M=4.09)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2.75, p<.001). 수면문제에 따라 수면문제 없음(M=2.85), 보통(M=3.11), 심함(M=3.10)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77, p=.009).

#### 3.3.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

[표 2] 생활만족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1.19		4.05**	1.01		3.00*
Work satisfaction	.48	.22	5.53**	.48	.22	5.77**
Social support	.43	.26	6.41**	.42	.25	6.36**
Work-life balance	-.18	-.16	-4.03**	-.16	-.14	-3.69**
Age	d1			.41	.18	3.41*
	d2			.05	.02	.46
	d3			.19	.09	1.60
	d4			.13	.05	.87
Education	d1			.02	.01	.15
	d2			-.07	-.04	-.48
Emotional response manual	d1			-.21	-.11	-2.94*
Subjective health status	d1			.44	.21	5.49**
	d2			1.06	.14	3.63**
Sleeping problem	d1			.04	.01	.15
	d2			-.32	-.06	-1.59
R <sup>2</sup>	.14			.24		
Adjusted R <sup>2</sup>	.14			.22		
F	31.21 (p<.001)			12.59 (p<.001)		

Dummy variable : Age(≤29=0, 30~39=1, 40~49=2, 50~59=3, ≥60=4), Education(≤ middle school=0, high school=1, ≥ college=2), Emotional response manual(Yes=0, No=1), Subjective health status(Healthy=0, Moderate=1, Unhealthy=2), Sleeping problem(Severe=0, Moderate=1, None=2)

\*\* p<.001; \*p<.005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델 1에서는 독립변수인 근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일과 생활 균형을 투입하였고,

분석한 결과 모델 1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 $F=31.21, p<.001$ ), 생활만족도를 14% 설명하였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요인은 사회적 지지( $\beta=.26$ ), 근무만족도( $\beta=.22$ ), 일과 생활 균형( $\beta=-.16$ )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일반적 및 건강관련 특성 중 생활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 연령, 교육정도, 감정대응 매뉴얼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문제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 2의 설명력은 22%로 모델 1에 비해 8% 증가하였으며, 모델 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2.59, p<.001$ ).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일반적 및 건강관련 특성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중 보통( $\beta=.21$ ), 건강하지않음( $\beta=.14$ ), 연령에서 30대( $\beta=.18$ ), 감정대응 매뉴얼이 없는 경우( $\beta=-.11$ )로 나타났다.

#### 4. 결론

본 연구를 토대로 생활만족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와 근무만족, 일과 생활균형 증진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하여 교대근무 서비스 종사자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허중옥, “근로여건과 여가활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제 14권, 3호, pp. 69-87, 2018.
- [2] 남기섭, “일과 생활의 균형(WLB)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기업경영리뷰, 제 8권, 2호, pp. 105-124, 2017.
- [3] Schneider, B., Macey, W. H., Lee, W., & Young, S. A., “Employee engagement: Fad, fashion and folderol— withsome validity”, Rolling Meadows, IL: Valtera Corporation, 2007.